

보도일시

(인터넷) 2024. 5. 9.(목) 11:00

(지면) 2024. 5. 10.(금) 조간

배포

2024. 5. 9.(목) 06:00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 맞아

- 5. 10. 준공 50주년 및 2024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을 맞아 5월 10일(금) 인천항 갑문 입출항관람장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수위가 다른 두 개의 수면 사이를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수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시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대한토목학회장을 비롯하여 갑문 건설 초기 갑문관리소에 근무하였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갑문 시설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인천항 갑문의 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 조형물 제막식과 갑문 근무 퇴직자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10m에 달해 항만 개발에 지리적으로 불리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극복하여 인천항을 서해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일정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갑문시설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5월 10일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6번째 규모의 갑문인 '인천항 갑문'이 준공되었다.

갑문 건설로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관문이자 중심 항만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1980년대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올해 3월 29일에는 인천항 갑문이 그 역사적·기술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대한토목학회로부터 2024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항 갑문의 50주년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성취를 회고하고 기념하는 데 있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라며, “인천항 갑문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50년 또한 인천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책임자	과 장	박상혁 (032-880-6210)
		담당자	사무관	국현진 (032-880-6221)

1. 추진목적

- 올해로 갑문 준공(실준공: 1974.05.10.)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회고하고 축하하고자 본 기념행사를 추진함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갑문 준공 50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4. 5. 10.(금) 11:00~13:00(예정)
- 장 소 : 인천항 갑문 입출항관람장 일원
- 참석대상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IPA 사장, 대한토목학회장 등 약 100명
- 주요내용
 - ① 갑문 근무 퇴직자 초청 및 감사패 수여
 - ② 준공 50주년 및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을 위한 조형물 제막식

< 인천항 갑문 전경 >



3. 식 순

시 간	구 분	출 연
11:00-11:10(10')	참석자 도착 및 사전 환담	-
11:10-11:15(05')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1:15-11:19(04')	내빈소개	사회자
11:19-11:23(04')	기념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1:23-11:27(04')	축 사	인천항만공사 사장
11:27-11:31(04')	축 사	퇴직자 대표
11:31-11:35(04')	축 사	대한토목학회장
11:35-11:40(05')	퇴직자 감사패 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11:40-11:45(05')	경과보고	사회자, 학회 관계자
11:45-11:50(05')	50주년 기념비 및 토목문화유산 지정 동판 제막식	참석자 전원
11:50-12:00(10')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2:00-12:05(05')	폐식선언	사회자

※ 우천 시 기념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오찬의 경우 인천해사고등학교와 협의하여 대강당 등 대체장소 마련 예정